

東洋의發明 了卑躬를 찾는다

漢代의 醫學

喜怒哀樂의 감정도 인간의 정신을 해치고 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질병이란 단순한 육체만의 문제가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漢方醫學의 기초가 되는 氣血과 經絡이 나오는 것은 <內經>이다.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요소는 氣와 血로서, 氣는 보다 근본적인 생명력의 원천으로 여겨지는 경향은 있으나 氣와 血은 그 이상의 구별은 지어지지 않은 채 함께 사용되는 수가 많았다. 해부학적으로 양쪽이 서로 다른 기관을 통해 온몸에 퍼지는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았다. 그대신 이들을 운반하는 것으로 經絡의 존재를 인정했다. 經絡의 중심적인 존재는 12經脈으로 이들이 온몸에 연결되어 있고 인체는 이에 의해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다. 脈을 짚어 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생각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이때부터 사용되어 온 것이다.

또한 이처럼 인체가 經絡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중요한 곳이 있어 그곳을 자극함으로써 질병이 치료되고 신진대사가 촉진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된다. 이런 要處가 바로 穴이라 불리우는 곳으로 인체에는 365개의 穴이 있다고 여겨졌다. 한 해의 날 수와 같은 수의 穴을 인정하는 것에서도 이미 天人合一의 발상이 있음은 분명하다. 이것이 바로 鍼灸와 연관된 것이며, 이 부분은 <內經> 중에서도 靈樞經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당연히 어느 정도 解剖學이 발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도 있다. 1972년 長沙에서는 기원전 2세기, 즉 前漢代에 매장된 것으로 보이는

여자 시체가 완전한 상태로 발굴되어 나온 적이 있는데 에집트의 미라와는 달리 내장도 빠지지 않은 채 보존된 것이었다. 머리카락 한 올도 모두 부모냄에게서 얻은 것으로서 손상해서는 안된다는 孝의 사상이 있는 유교전통에서 해부학이 발달할 수는 없는 일이었을 것 같다.

그런대로 해부의 기록이 아주 없지는 않아서 <漢書> 王莽傳에는 해부에 관한 얘기가 조금 있고, 또 뒤에 鍼灸를 가르치기 위해 사용된 인형이라 할 수 있는 銅人像의 제작도 漢代에 시작된 것으로 해부학적 지식과 관련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유교사회에서의 解剖學은 그 이상 발달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된다.

해부학이 발달하지 못하는 풍토는 또한 外科學이 성행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後漢書> 方術傳에 나오는 名醫 華佗는 거의 유일한 예외에 속한다. 100세에 가까이까지 젊은이처럼 건강하게 살았다는 전설속의 인물인 華佗는 後漢보다 三國시대의 의사였다. 그는 養生에 능했고 鍼灸와 약물의 사용에 모두 뛰어난 당대의 최고 명의였는데, 이런 통상적 치료가 듣지 않자 환자의 배를 수술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는 수술할 때 麻沸散을 사용할 것으로 널리 알려져 왔는데, 이것은 麻를 끓여(沸) 만든 분말의 정제품이란 뜻일 것이다. 말하자면 성능이 아주 좋은 大麻草계품, 즉 마리화나를 사용한 설퍼어서 이치에는 맞는 듯하다. 그러나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 당시의 의학 수준이 이런 外科手術을 실시할 수 있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麻沸散으로 유명한 華佗는 五禽之戲라는 호랑이·사슴·곰·원숭이·새의 움직임을 본떠 만든 운동을 함으로써 장수했다고도 전해지고 있다. 또 그는 의사로

- …… 우리는 흔히 現代 發明科學은 17世紀 이후 西洋에서 始作된 것의 延長으로 東洋의……○
- ……發明科學과는 關聯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
- ……이다. 發明科學史는 西洋의 것만이 아니라 東洋의 것도 包括하고 있기 때문이다. ……○
- ……특히 東洋 發明科學史 중에서도 지금 우리의 血管속에 흐르고 있는 韓國 發明……○
- ……科學史의 背景을 이루는 中國의 發明科學的 傳統에 이해가 극히 重要함을 느끼게……○
- ……된다. ……○
- ……이와 함께 佛敎를 통하여 우리의 傳統文化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印度의 自然……○
- ……觀과 우리와 비슷한 傳統에 속하면서도 재빨리 近代 發明科學과 技術의 수용에 成……○
- ……功하여 先進國으로 成長한 日本의 近代 發明科學의 발달상을 살펴볼 必要가 있다. ……○
- ……이에 本誌는 「韓國의 發明 그 뿌리를 찾는다」에 이어 「東洋의 發明」의 뿌리를 追……○
- ……跡해 보았다. ……○ <編輯者 註> ……○

서 이름을 떨치게 되자 만년에 三國 가운데 魏나라의 曹操에게 불려가 그 侍醫로 임명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아내의 병을 핑계로 고향에 내려가 올라오지 않았고, 이에 노한 曹操는 그를 체포하여 사형에 처하고 만다. 전설에 의하면 華佗는 사형받기 직전 책 한권을 간수에게 주고 이 책으로 사람들의 질병을 구하라고 말했다지만 그 간수가 처벌을 두려워하여 받지 않았으며, 이에 그는 그 책을 불에 태워 없앴다고 한다. 당대의 名醫이며 마취제를 처음 사용한 중국역사상 최고의 外科醫 華佗가 어찌서 아무런 책도 후세에 남기지 못했는가를 설명해 주는 전설이라 하겠다.

張仲景의 傷寒論

한의학 전통에서 <黃希內經>이 의학이론을 대표하는 책이라던, 後漢의 張機가 지은 <傷寒雜病論>은 임상적 대표저술이라 할 수 있다. <內經>을 醫經에 속하는 대표작이라면, <傷寒論>은 醫方을 모아 놓은 셈이라고나 할까.

張機는 河南省의 南陽에서 나서 張伯祖에게 의학을 배웠으나 원래 직업이 의사는 아니었다. 字가 仲景이었던 그는 보통 張仲景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는데 한 때 長沙의 太守까지 지낸 유학자였다. 선비 張仲景이 <傷寒論>이란 의학책으로 후세에 이름을 남기게 된 때에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後漢의 마지막 시기인 建安(서기 196~220년 사이에 사용된 年號) 때에 그의 가족이 병으로 많이 죽었던 것이다.

그의 일족 200명 가운데 3분의 2가 이때 사망했는데 원인의 70%는 傷寒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傷寒이라

부른 것은 감기와 폐염으로부터 학질·장티푸스까지의 여러가지 熱病을 통칭한 것이었다.

이런 환경 때문에 張仲景은 인간의 질병에 대해 연구하게 되어 여러 치료방법을 모아 <傷寒雜病論> 16권을 써내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책이나 마찬가지로 이 책도 원본이 지금 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중 熱病에 관한 증집부분은 1세기 남짓 뒤에 西晉의 王叔和(210~285)에 의해 <傷寒論> 10권으로 편집되고 이것이 宋代에 교정되어 오늘에 전해지고 있다. 또 나머지 부분은 <金匱要略> 3권이 되어 역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張仲景의 <傷寒雜病論>이 뒤에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두권으로 나뉘진 셈이다.

張仲景의 의학사상은 질병을 三陰三陽의 여섯 종류로 분류해 보려는데 그 특징이 있다. 병을 그 증세에 따라

| | |
|----|---------------------|
| 三陽 | (太陽病 陽明病 少陽病) |
| 三陰 | (太陰病 少陰病 厥陰病) |

등 6종류로 나누었다. 증세가 三陽의 경우엔 신체의 표면에 나타나고 또 보다 가벼울 수가 많은데 반해, 三陰의 질병은 신체내부 깊숙히 나타나고 또 증세도 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위의 차례 가운데 제일 아래 단계(厥陰病)로 내려 올수록 증증이 된다. 흥미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뇌일혈등을 부르는 中風이란 말이 여기에 쓰여지고 있는데, 지금의 뜻과는 좀 달라서 三陽三陰의 질병가운데 좀 가벼운 경우를 中風이라고 부르고, 증증을 傷寒이라 하고 있다.

(계속)